

앙굴리말라 에피소드를 통해 본 붓다의 교육체제와 깨달음

이 필 원 *

동국대학교(경주)

【요약】

앙굴리말라는 불교사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그는 999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로서, 도저히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인이다. 그런데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라는 성인이 된다. 앙굴리말라에게는 살인마와 성인이라는 두 얼굴이 있는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불교사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살인의 업(karma)과 깨달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범죄를 단죄하는 방식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과연 붓다는 어떻게 흉악한 살인자를 성인으로 거듭나게 했는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앙굴리말라경에서 볼 수 있는 붓다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자각의 체계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까르마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온전하게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앙굴리말라경은 철저하게 현재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완벽하게 단절된 과거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과거의 나쁜 까르마, 즉 살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면 그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까르마에서 벗어났기에 그 행위의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가능함을 앙굴리말라경은 보여준다.

주제어 : 붓다, 앙굴리말라, 까르마(업), 깨달음, 의도, 교화, 동기주의, 결과주의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leepwon@gmail.com

1. 들어가는 말

붓다를 ‘스승’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붓다는 불교라는 종교의 교조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의 교조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갖는다.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고타마 붓다는 구원자는 아니다. 경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원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타마 붓다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그런 만큼 붓다는 우리에게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육의 목적인 ‘깨달음’을 보여주는 스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스승으로서 붓다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suttam)」이다. 이 경전은 Majjhima Nikāya(이하 MN.)에 수록되어 있고, 86번경이다. 이 경전은 붓다 당시 꼬살라국의 사왓띠시 근처에 앙굴리말라라고 이름하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경이 설해지게 된 인연은 주석서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몇 명을 죽였는지에, 왜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앙굴리말라경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된 앙굴리말라가 어떻게 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깨달음과 살인의 업(業, Karma)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붓다의 교육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앙굴리말라경」의 내용 소개

앙굴리말라의 본래 이름은 아힘사까(Ahimsaka)라고 한다. 이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경의 주인공인 아힘사까는 총명한 이로 스승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질투로 스승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무고로 삶이 뒤바뀐 사람이다. 스승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 올 것을 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힘사까는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하여 앙굴리말라(Aṅgulimāl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999개의 손가락을 모았고, 마지막 사람을 죽이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붓다는 앙굴리말라의 어머니 만따니(Mantāni)가 그를 방문하러 가는 것을 알고, 먼저 앙굴리말

라를 찾아간 것이다.¹⁾

이상이 앙굴리말라경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다. 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서론	붓다,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본론	1	앙굴리말라 붓다를 만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다
	2	빠세나디 왕, 붓다를 방문한 뒤 출가자 앙굴리말라를 만나다
	3	앙굴리말라 난산의 여인에게 축복하다
	4	앙굴리말라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다
	4	앙굴리말라 탁발을 위해 마을에 갔다가 폭력을 당하다
결론	앙굴리말라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다	

위의 표가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의 주된 내용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앙굴리말라가 출가한 것과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한 것, 그리고 깨달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경에서는 앙굴리말라가 왜 살인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주석서의 설명에서 그 인연담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경의 내용을 보면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코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음을 경전을 기록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저의 왕국에 앙굴리마라라고 이름하는 흉폭한 도적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²⁾

이렇듯 국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앙굴리마라를 붓다가 홀로 찾아간 것이고, 그를 교화하여 제자로 맞이한 것이 본론의 첫 번째 장면이다. 붓다가 흉폭한(luddha) 도적 앙굴리마라를 어떻게 교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전재성, 「앙굴리말라의 경」, 『맞지마니까야』,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p.973. 각주 1501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MN.II, p.101. 전재성, 앞의 책, p.976.

3. 붓다 교육의 특징

붓다를 교육자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³⁾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붓다를 특히 도덕 교육자⁴⁾로 평가한다. 서양에서도 붓다를 윤리적 측면, 특히 덕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연구자들⁵⁾이 있다. 불교를 삼학의 체계로 본다면, 계학이 첫 번째로 언급되기에 도덕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앙굴리마라경」에서 붓다의 교육이 갖는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관심의 촉발

먼저 붓다와 앙굴리마라가 만나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수행자여, 멈추어라. 수행자여, 멈추어라.”
 “앙굴리마라여,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 중간 생략 ...
 “수행자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고.’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어라.’라고 말한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마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생명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⁶⁾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붓다의 일반적이지 않은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앙굴리마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⁷⁾는 내용이다. 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긴

3) 신희정,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불교평론』 2018, 73호.

4) 박병기, 「불교 도덕교육론의 쟁점과 현재적 과제」, 『윤리연구』 72, 2009 ; 신희정(2018)

5) 대표적으로 D. Keown을 들 수 있다.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New York : Palgrave, 2001). 그리고 Abraham Velez de Cea, 'The Criteria of Goodness in the Pali Nikayas and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Journal of Buddhist Ethics 11, 2004.도 있다. 국내에서는 안옥선, 「불교윤리와 현대윤리학의 만남」 『불교학연구』 12호, 2005가 있다.

6) MN.II, pp.99-100.

하지만, 앙굴리마라가 살해 의도를 접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교육은 피교육자가 교육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해짐을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교육의 시작은 피교육자의 ‘궁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붓다는 초월적 힘(iddhābhisamkhāra)을 사용하여, 앙굴리마라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킨 것이다.⁸⁾ 붓다를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이제 피교육자가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면, 붓다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간다.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라는 말은 앙굴리마라로 하여금 강력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한다. 기존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된다. 앙굴리마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여기에 붓다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춤이 ‘멈춤’의 의미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앙굴리마라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자각⁹⁾을 하게 된다. 즉 폭력과 자제하지 못함에서 악함을 버리는 전환을 이루게 된다.

3.2. 새로운 삶의 방식

완전한 인식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앙굴리마라는 살인자의 삶에서 출가자의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논하게 되겠지만, 불교에서 ‘까르마(業)’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가 앙굴리마라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붓다가 앙굴리말라에게 이전의 삶의

7) MN.II, p.99.

8) 붓다가 신통력, 즉 초월적인 힘을 통해 피교육자의 마음을 돌리는 에피소드는 또 있다. Vin. I, 전재성 역, 『마하박가 율장 대품』,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pp.129~145에 우루웰라 까사빠를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통력을 통해 우루웰라가 가르침을 청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신통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때, 6신통을 말한다. 신통력을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 일반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즉 여기에서는 두려움없이 연쇄살인마 앞에서 당당하여, 오히려 살인마가 위축된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신통력이 아닐까 싶다.

9) 자각은 굳이 빨리어로 표현하면, sacchikaroti(to see with one's eyes, to realize, to experience for oneself)의 의미로 필자는 사용한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념적 허구가 사라져 버린 상태에 가깝다. 예를 들어, 어두운 동굴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자각’이라고 필자는 사용한다. 이것이 진전되면 Yathābhūtañāṇa(如實知見)으로 연결된다.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견해’는 번뇌를 버리고 구경지와 보디(bodhi)를 성취하게 한다.(고빈드 찬드라 판데, 『불교의 기원』(정준영 역), 서울 : 민족사, 2019, pp.554~556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다.)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내적 동기에 의한 변화이어야 한다. 붓다는 앙굴리마라에게 바로 그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¹⁰⁾

내적 동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앙굴리마라는 선한 의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악한 의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드디어 위대한 선인으로 이 수행자가 나를 위해 이 커다란 숲에 나타나셨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당신의 시를 듣고 저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¹¹⁾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용서해 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서받음이 과연 무의식의 상처까지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까? 앙굴리마라는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붓다는 바로 그 길을 보여준 것이고, 그 길을 보자마자 앙굴리마라는 스스로 안심(安心)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용서는 남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자신의 무의식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¹²⁾

결국 앙굴리마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의 삶과의 영원한 결별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앙굴리마라는 그가 지은 살인죄업과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남는다.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안심을 성취한 것으로 되었다고 말하면 이는 너무 편리한 말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을 붓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3.3 까르마의 변환을 통한 교육 목적의 달성

앙굴리말라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까르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10) 여기에서 내적 동기는 앞서 언급한 관심의 촉발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붓다의 신통력으로 관심을 촉발시켰다면, 그 이후 붓다의 가르침이 내적 동기, 즉 선한 의도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11) MN.II, pp.99-100.

12)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5, p.253.

래서 우선 불교의 까르마 이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불교는 까르마보다는 번뇌(Klesa)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까르마의 소멸을 통해 해탈을 얻는다는 관념보다는 번뇌를 소멸하여 해탈을 성취한다는 관념이 주된 관념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입장이 바로 자이나와 인도 정통 사상의 까르마 관념이다.

브롱코스트에 따르면 붓다 당시의 까르마 관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¹³⁾

1. 까르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윤회로부터 해탈하고자 할 때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행이 요구되며, 고행의 방식은 응보의 경험을 일으킴으로써 과거행위를 소멸시킨다.
2. 까르마는 참된 자아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다. 참된 자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된 자아를 통찰하게 되면, 까르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가 자이나의 입장을 대변하며, 두 번째가 인도 정통철학의 입장을 대변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이나의 입장이다. 불교는 무아(無我, anattā), 즉 자아의 실재성을 부정하기에 두 번째의 입장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자이나의 입장은 불교 텍스트 내에서 비판되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되기도 한다.¹⁴⁾ 하지만 브롱코스트에 따르면, 자이나적 까르마관의 수용은 붓다 이후 일부의 불교학파에 의해 지지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붓다의 까르마에 대한 입장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다른 종교집단의 까르마관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까르마 이론은 주로 자이나교의 이해가 반영된 인과응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기계론적 이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곧 까르마 이론의 숙명론적이며 결과론적인 이해를 극복하여, 윤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기존의 까르마 이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두 가지의 핵심적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존의 까르마 이론은 행위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신체·언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가 까르마의 내용이란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기존의 까르마 이해에 먼저 의도(cetanā)를 부각/부가함으로써 까르마 이론을 수정한다. ‘의도’를 부각/부가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까르마의 본질을 신체·언어·정신적 행위가 아닌 ‘의도’로 해석함으로써 까르마의 적용범위를 하나로 수렴/환원한 것이다. 둘째로는 선업(puñña)의 축적을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보장해주는 내용에서 ‘깨달음’의 원인으로

13) Bronkhorst, Johannes, “Did the Buddha Believe in Karma and Rebir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1-1, 1998, pp.13~14

14) Bronkhorst, Johannes, “The Buddha and the Jainas reconsidered.” *Asiatische Studien* 49-2, 1995, pp.334~335

확대해석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인도 전통의 까르마 이해와는 전혀 다른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선결과제가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까르마는 삼업, 즉 신·구·의(身口意)의 활동이 까르마를 형성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意)를 전통적인 입장과 같이 ‘의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자이나에서 말하는 까르마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을 포괄한다. 물론 언어적 활동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된다. 자이나에서 말하는 정신적 활동은 ‘의도(intent)’로 번역되며, 이것은 육체적 활동의 배후에 놓이기도 하며, 독립적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와 자이나의 차이는 자이나의 경우 ‘의도’가 결합된 육체적 활동이라도 그것은 까르마를 형성한다고 보는 반면, 불교에서는 까르마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까르마의 본질로 이해한 ‘의도’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¹⁵⁾ 이 두 해석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불교적 해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¹⁶⁾ 둘째 선업의 축적을 깨달음과 관련짓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 행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빈민구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깨달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방식의 불교적 까르마 이해는 윤리학적으로는 ‘동기주의’에 해당하며, 자이나 전통의 까르마 이해는 ‘결과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자이나 전통의 까르마 이해는 기계론적 이해인 반면, 불교적 까르마 이해는 이전의 조건에 저항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정립하는 자유의지를 인정한다.¹⁷⁾

한편 일본의 미즈노코젠은 까르마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순한 작용을 의미한다. 이때는 선악의 도덕의식도 강력한 의지작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의 업보를 초래하지 않는다.

② 의식작법(행위)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계율의 수계작법이나, 교단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의식작법 등을 의미한다. 이 때 행해지는 작법에는 의지작용이나 의식이 있다고 해도, 윤리도덕적인 선악의 의지작용은 포함하지 않기에, 이것 역시 인과의 업보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5) Bronkhorst, Johannes, *Ibid*, 1998, p.14

16) 하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에, 차후의 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17) 데미언 키온, 허남걸 역, 『불교응용윤리학입문』, 서울 : 한국불교연구원, 2007, p.22

③ 윤리 도덕적 혹은 종교적 선악염정(善惡染淨)의 의지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까르마는 윤회전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가장 협의의 카르마의 경우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윤회전생의 인과업보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윤회전생을 초래하는 까르마는 선업과 불선업이지만, 선업 가운데에는 윤회에 관계하는 유루의 선과 윤회를 초월하여 환멸(還滅)에 이르게 하는 무루의 선업도 있다. 또한 선악업 외에 윤회업보와 직접 관계하지 않는 무기업(無記業)도 있다. 기술이나 예능 등 훈련 숙달에 관계하는 행위가 그것이다.¹⁸⁾

이 가운데 본 주제와 관련된 까르마의 관념은 세 번째이다. 이 세 번째 까르마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악의 의도(意思, cetanā), 또는 행위의 동기목적
2. 신체와 말에 의한 실제 행동
3. 실제 행동 후에 남게 되는 습관력/경향성

불교에서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에서 찾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빨리 니까야 AN6.63 및 니까야에 상응하는 한역 『중아함경』²⁷권 「達梵行經」과 안세고역 『漏分布經』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에서 찾는다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행위는 모두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된다.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행위를 까르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한 의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행위는 습관력/경향성을 형성하여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 행동의 교정을 통해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도’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 다소 길게 까르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앞서 불교는 까르마의 문제보다는 번뇌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한다고 말했다. 번뇌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초기불교 텍스트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분노하는 중생은 분노로 인해 나쁜 곳으로 간다. 그 분노를 올바르게 알아서 통찰하는 자는 끊어 버린다. 끊어버린 뒤에 이 세상으로 결코 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¹⁹⁾

18) 水野弘元, 「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 『仏教學セミナー』 20, 1974, p.2.

19) It, p.2. 번역은 전재성, 『이따따까』,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2, p.58.

욕망과 탐욕과 무명을 사라지게 하여 명지를 일으키는 수행승은 일체의 나쁜 곳을 끊어버린다.²⁰⁾

분노(kodha), 욕망(chanda), 탐욕(lobha), 무명(avijja)은 대표적인 번뇌들이다. 이들 번뇌를 끊게 되면 욕망을 기초로 한 이 세상, 즉 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고, 일체의 나쁜 곳(지옥, 아귀, 축생, 수라의 4악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까르마는 이러한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번뇌를 제거함으로서 우리는 불건전한 까르마를 생성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생성된 악한 까르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앙굴리마라경에서 이 내용을 붓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자.

한때에 존자 앙굴리마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사왓띠 시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그 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돌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 왔다. 그래서 존자 앙굴리말라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발우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세존께서는 존자 앙굴리마라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존자 앙굴리마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인내하라. 비구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²¹⁾

위 인용문에서 보면,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하러 갔다가 사람들로 부터 집단 폭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경전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매우 심한 폭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앙굴리말라임을 안 사람들의 분노는 대단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죽인 자가 비록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분노가 사라지거나 누그러뜨려지지 않는 것 이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로 부터 폭행을 당한 앙굴리마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스승 붓다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 모습을 본 붓다는 그 앙굴리말라의 상처를 돌보며 말했을 것이다. ‘비구여, 인내하라, 비구여 인내하라’라고. 그리고 한 말은

20) It, p.43. 번역은 전재성, 위의 책, p.102.

21) MN. II, p.104 ; 전재성, 『맛지마니까야』, p.979. 번역은 전재성의 번역을 조금 수정함.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바로 여기에서 까르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사실 앙굴리마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²²⁾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재생이 없게 된다.²³⁾ 재생이 없기 위해서는 재생의 원인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도 앙굴리마라의 살인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만 다음 생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앙굴리마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행위에 상응하는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번뇌의 단절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과에 대한 내용이며, 번뇌의 단절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재생의 원인을 만들지 않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까르마 이론에 비추어 보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즉 브롱코스트가 말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의도의 정화와 키온이 말한 ‘이전의 조건에 저항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정립하는 자유의지’의 온전한 발현이 인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번뇌의 단절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붓다가 앙굴리말라에게 ‘인내하라’고 말한 것을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앞서 It.의 경문을 통해 보았던 “분노를 올바르게 알아서 통찰하는 자는 끊어 버린다”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심리적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전하게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게 된다. 붓다가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앙굴리말라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줌으로써 깨달음을 점검하고, 앙굴리말라 스스로 깨달음의 환희 속에 머물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이어지는 앙굴리말라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앙굴리말라의 자기 자각과 깨달음

앙굴리마라경의 구조를 보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앙굴리말라는 사왓띠 시로 탁발을 나갔다가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를 보고, 붓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자.

22) MN.II, p.104. “aññataro kho pa’ āyasmā Aṅgulimālo arahataṃ ahosi.”,

23) MN.II, pp.103~104. “Khīṇa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i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abbhaññasi.” “태어남은 소멸되었고, 도덕적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태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사왓띠 시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태어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저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사왓띠 시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대답하고 사왓띠 시를 찾아갔다. 가서 그 부인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내가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잘 되고 태어도 잘 되었다.²⁴⁾

위 인용 경구에서 핵심은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라는 구절이다. 불교에서 윤회란 물리적 시간으로서 과거 전생과 현재의 현생, 그리고 미래의 내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의 습관과 업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순간, 그것은 새로운 태어남인 것이다. 과거의 업과의 완전한 결별은 과거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새로운 생의 시작인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새로운 생을 시작한 이래 ‘의도적으로 못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붓다가 처음 ‘내가 태어난 이래 의도적으로 ...’의 의미 역시 같은 의미인데, 앙굴리말라가 붓다의 의도를 처음에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tena saccena)란 말이 갖는 의미는 ‘과거의 업과의 완전한 결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앙굴리말라는 산모에게 가서 붓다의 말씀대로 축원을 해 주게 되고, 머지않은 시점에 깨달음을 성취, 아라한이 된다.²⁵⁾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업과의 완전한 결별’이 가능함을

24) MN.II, p.103 ; 전재성, 앞의 책, p.978~979의 번역을 전재함.

25) MN.II, p.103. diṭṭhe a dhammae sayam abhiñña sacchikatvā upasampajja vihāsi.

온전히 알고, 그것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의 완성은 탁발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알아본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받은 폭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과거 인과를 청산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²⁶⁾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 표현한다.²⁷⁾ 그의 노래를 길지만 인용²⁸⁾한 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과거업의 단절
2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선함을 통한 악업의 극복
3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스승의 가르침을 찬양
4	너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5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의 여임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에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라.	
6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네. 그는 최상의 평온을 얻어 약자이건 강자이건 수호한다.	가르침의 결과
7	관개하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자는 화살촉을 바로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8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나 갈고리나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	
9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였네.	과거업의 단절과 새로운 태어남
10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을 얻었네.	
11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재의 통로를 끊고 내가 귀의한 것을 보라.	
12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과거업보의 수용

26) 이는 앞서 소개했던(D. Keown 2007 : 22) 기계론적 까르마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앙굴리말라의 깨달음 획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999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기계론적 과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적 까르마 이론은 이전의 까르마와의 완전한 단절과 전혀 새로운 유형의 까르마를 정립함으로써 과거 까르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앙굴리말라의 예에서 보듯이, 까르마에 대한 과보의 경험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뇌의 새로운 생성이 차단되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7) Dhammapada-aṭṭhakata에 따르면,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8) MN.II, pp.104~105. ; 전재성, 앞의 책, pp.979~981. 번역은 전재성의 번역임. 다만 수행자를 비구로 바꿈.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과 깨달음의 경지
13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에 탐닉한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최상의 보물을 수호하듯 하네.	
14	방일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 방일을 여의고 선정에 드는 자 크고 한 없는 지복을 얻으리라.	
15	밝혀진 가르침들 가운데 그 최상의 것에 나는 도달했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16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이 앙굴리말라의 노래를 보면 16개의 계송 중 6계송이 과거업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6계송 중 3계송은 스승인 붓다에 대한 찬양이고 3계송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4계송은 앙굴리말라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1, 2, 9, 10, 11, 12계송을 분석해 보자.

먼저 계송 1과 2는 과거업의 단절과 새로운 선업을 통한 악업의 극복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악업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선업을 통해 악업을 덮어버리는 것(*kusalena pithiyati*)이다. 이는 업의 보상의 원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직접적으로 업관계를 갖는 A와 B가 업을 주고 받는 방식은 끝없는 보복의 원리로 작용하여 윤회를 종식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A와 B의 업관계를 넘어 선업을 쌓음으로서 기계적인 업관계의 단절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계송 9, 10, 11은 과거업이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지금의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를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 ‘부처님께 안식을 얻었네’, ‘존재의 통로를 끊고’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 계송 1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은 업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고품을 수용할 뿐이고, 배가 부르면 포만감을 수용할 뿐이다. 업에 대한 회피나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부채없이 음식을 즐기는 자(*anaṇṇo bhuñjāmi bhojanam*)’, 즉 온전히 해탈을 성취한 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개의 계송을 보면,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들며, 최상의 것에 도달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성취했다’는 깨달음의 온전한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은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되며, 각 깨달음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계기로서 붓다의 가르침이 개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단계	붓다의 가르침	앙굴리말라의 깨달음
1	나는 언제나 모든 생명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당신의 시를 듣고 나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2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존재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3	비구여, 인내하라. 비구여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붓다의 교육이 갖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붓다는 철저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둘째 붓다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붓다는 인과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의 길을 알려준다. 이러한 세 가지 붓다의 교육은 철저하게 피교육자가 스스로 자신을 통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마다 깨달음의 세계로 비약하고 있음을 경전은 보여준다.

5. 결론

앙굴리말라는 불교사에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율장 『마하박가』에서는 앙굴리말라와 같은 도적은 출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계율이 소개되고 있다.²⁹⁾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앙굴리말라는 나쁜 의미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이란 그의 과거의 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번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놈’이라는 시선으로 그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붓다는 과거에 어떤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하지 않고, 과거의 까르마와 완전하게 결별했다면 그는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29) 전재성, 『마하박가』, 서울 : 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2014, pp.225~226.

그런 점에서 앙굴리말라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다. 그 교화의 방법, 즉 교육의 방법은 적어도 붓다는 앞서 고찰했듯이 세 가지로 보여준다. 첫째는 올바른 현실인식이며, 둘째는 변화된 모습에 대한 통찰, 셋째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이다. 여기에서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거나 생략되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 또한 피교육자에게 강요를 하거나 권위로 눌러버리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붓다는 피교육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 들어서서 조금씩 변화고 있는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그 모습을 또한 명확하게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는 피교육자가 교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맞보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오늘날 교육에 비추어 말한다면, 이전의 불건전한 자신의 행위와 온전하게 결별하게 될 때 건전한 새로운 가르마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붓다는 마지막으로 인과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행위의 과보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앙굴리말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붓다의 교육 체계는 철저하게 자각의 체계이며, 인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이는 앙굴리말라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형성된 가르마는 그것인 선(kusala)이든 불선(akusala)이든 가르마를 만든 것이니, 이는 윤회의 조건이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다. 즉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듦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가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한 방식이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 전재성 역, 『마하박가』,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 전재성 역, 「앙굴리말라의 경」, 『맞지마니까야』,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 전재성 역, 『이따붓따까』,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2
- 고비드 찬드라 판데, 정준영 역, 『불교의 기원』, 서울 : 민족사, 2019
- 데미언 키온, 허남결 역, 『불교응용윤리학입문』, 서울 : 한국불교연구원, 2007
- 박병기, 「불교 도덕교육론의 쟁점과 현재적 과제」, 『윤리연구』 72, 2009
- 신희정,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불교평론』 2018, 73호.
- 안옥선, 「불교윤리와 현대윤리학의 만남」 『불교학연구』 12호, 2005
- 정도언, 『프로이트의 의자』,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5
- Abraham Velez de Cea, 'The Criteria of Goodness in the Pali Nikayas and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Journal of Buddhist Ethics 11, 2004.
- Bronkhorst, Johannes, "The Buddha and the Jainas reconsidered." Asiatische Studien 49-2, 1995
- Bronkhorst, Johannes, "Did the Buddha Believe in Karma and Rebir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1-1, 1998
- D. Keown.,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New York : Palgrave, 2001
- 水野弘元, 「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 『仏教學セミナー』 20, 1974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28일 심사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연구자소개: 이필원

- ① 전공: 인도불교 / 소속과 직위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 ② 관심영역: 명상 및 불교사
- ③ 주요논저: 「초기불교의 정서이해」, 「사대요소설과 명상수행, 그리고 수행의 효과: MN. No. 62 Maharahulovadasutta를 중심으로」, 「간화선의 심리치료적 기능에 대한 고찰」,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불교입문』(공저)
- ④ E-mail: leepwon@gmail.com
-

Abstract

Buddha's Educational System and Enlightenment through
Aṅgulimāla Episodes

Lee, Pilwon

Dongguk Univ.(gyeongju)

Aṅgulimāla is a very unique in Buddhist history. He is a serial killer who killed 999 people and is an unacceptable evil man in society. However, he is enlightened by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becomes an Arahāt. Aṅgulimāla has two faces, the murderer and the saint. Aṅgulimāla has a unique meaning in Buddhist history because it relates to how the karma of murder and enlightenment are understood. It is also noteworthy that it shows a Buddhist solution to the way of condemning crime today. There is much to us today about how the Buddha made a vicious killer a saint.

The Buddha's educational system, as found in the Aṅgulimāla, is a system of awareness. It allows them to make their own right and wrong judgments, and to fully recognize themselves as the result of their actions with their awareness of karma.

And the Aṅgulimāla-sutta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a person by the present act thoroughly, but not by the act of the past that is already completely cut off. If you are completely out of the bad karma of the past like murder, you are no longer a murderer. The Aṅgulimāla-sutta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be responsible for accepting the consequences of the act completely because it has escaped the karma of the past.

**Keywords : Buddha, Aṅgulimāla, Karma, Enlightenment, Intention, Edification,
Motivation, Consequentialism**